

## 한반도의 평화, 청년의 미래

-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및 장관-청년 미래대화 개최(4.29.)

- 통일부는 4월 29일(수) 오후 3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제3기 2030 청년자문단(이하 ‘제3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 정 장관은 북한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오두산에서 남북교류의 소회를 밝히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남북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일을 이룬다)”을 인용하며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다.
- 또한 청년인력으로 임명·위촉된 청년보좌역, 제3기 자문단, 청년인턴 각 대표는 향후 업무수행에 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 청년보좌역으로 임명된 오세진 주무관은 제3기 자문단, 청년인턴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 제3기 자문단 및 청년인턴 대표는 청년 의견수렴, 청년 시점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 등 소통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통일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 모니터링, 신규 과제 발굴, 청년 여론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통일부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통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붙임 : 행사 사진(별첨)

담당 부서	한반도평화경청단	책임자	과 장	박성림 (02-2100-5451)
	한반도평화공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허선미 (02-2100-5455)